

광주 광산갑 '반칙 경선' 시민의 힘으로 바로잡았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불법 선거운동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광주 광산갑 이석형 후보의 공천을 전격 취소했다. <관련기사 3면>
민주당이 21대 총선을 앞두고 후보 공천을 취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 후보에 대한 불·탈법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압수수색과 선관위의 조사 등이 잇따른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광주일보 2020년 3월 18일자 1면·16일자 1면·6일자 1면>

지역 정치권에서는 여당의 뒷발질 공천에서 불·탈법 의혹이 제기된 후보에 대한 지역민 거부감이 커지면서 전체적인 총선 민심 악화를 우려한 민주당이 공천 취소

는 결단을 내렸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결국 광주 시민의 힘에 민주당이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광산갑 이석형 후보의 공천을 무효로 하고 경선에서 패배한 이용빈 후보를 공천했다. 제윤경 대변인은 "이석형 후보자는 공직후보자로 추천하기에 명백히 부적합한 사유가 발생했다고 판단해 후보자 추천을 무효화하고 이용빈 예비후보자를 재추천, 이결 및 인준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광산갑은 당초 이석형 예비후보와 이용빈 예비후보의 1대1 경선이었다"며 "이석형 예비후보 추천이 무

효화되면서 당시 후보로 등록한 이용빈 예비후보를 재추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석형 예비후보는 지난 2월부터 3월 초까지 자신의 휴대전화와 후원회 사무실에 설치한 유선전화를 이용해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

다.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석형 예비후보와 관계자 등 8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16일 이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히, 민주당의 이번 공천 취소는 광주시 선관위가 불법선거운동 고발에 이어 이석형 후보 측이 경선 과정에서 금품을 제

공했다는 신고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다는 점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이날 최고위에서 사무총장이 광산갑의 상황에 대해 보고했고 이해찬 대표가 직접 최고위원들에게 의견을 구해 이석형 후보의 공천 무효를 결정했다"며 "최고위원들도 이번 사건에 대한 심각성을 공감했으며 이전 결정은 전혀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이번 공천 취소에 대해 때늦은 감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용빈 예비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이석형 후보의 불법 선거운동을 이유로 재

심을 신청한데 이어 광주시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하고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섰음에도 민주당 재심위와 최고위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들어 이석형 후보에 공천을 줬기 때문이다. 결국,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하고 금품 살포 의혹까지 나오자 최고위가 뒤늦게 이전 결정을 번복했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의 허술한 경선 관리에 광산 갑의 후보 교체로 넘어 광산을 재경선 등 광주·전남 곳곳에서 잡음을 낳고 있어 민심 이반이 현실화 될 것인지를 주목되고 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광주시, 해외 입국자 전원 능동감시

입국 후 2주간 하루 두 번 증상 여부 확인 1대1 모니터링

종교시설·피시방·노래방·운동시설 등 방문 자제 요청

정부 대책보다 한단계 높은 코로나19 방역 시스템을 이어가고 있는 광주시가 이번엔 해외에서 입국한 거주자 전원을 능동 감시하기로 결정했다. 전국적으로 해외여행 등을 다녀왔다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역유입 사례가 급증한 데 따른 조치다. <관련기사 2·7·8·14면>

이용섭 광주시장은 18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호소문을 발표하고 "광주 확진자는 모두 18명으로 보건당국의 노력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에도 최근 4일간 3명이 추가돼 안타깝다"며 "광주 16번 확진자는 최근 유럽 여행을 다녀오고, 광주 17·18번 확진자 부부는 스페인을 다녀온 딸과 접촉해 그 딸도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세계보건기구(WHO)가 감염병 세계적 대유행(팬데믹)을 선언할 정도로 엄중한 상황인 만큼 시민들께선 감염 위험이 높은 해외여행을 최대한 자제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들 통해 해외 입국자 중 광주 거주자와 체류자 명단을 확보해 입국 후 2주간 하루에 두 번 증상 여

부를 확인하는 1대1 능동 모니터링을 하고 자가격리를 강력히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종교시설, 피시방, 노래방, 콜센터, 학원, 실내 게임장과 운동 시설 등 방문과 행사 참석 등을 자제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해달라고 이 시장은 요청했다.

그는 어린이집 휴원 기간 연장과 관련해 "1099개 어린이집이 4월 5일까지 6주간 휴원하면서 16일 기준 긴급 돌봄 이용률이 전체 정원의 43.5%까지 올랐다"며 "보육 시설의 철저한 방역이 시급한 상황이니 마스크, 손 세정제 구매비 2억원, 소독 용품 구매비 1억원을 지원했다"고 전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담보·이자·보증료 등 3무(無) 자금 지원 절차를 더 간소화하고 공공요금 인상 연기 등 지원 방안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이 시장은 약속했다.

정부는 코로나19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양상에 따라 국민들에게 해외여행을 연기하고, 입국자에게는 검역 조사에

철저하게 응할 것을 당부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발생한 신규 환자 중 5% 정도가 해외유입 환자로,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며 "전 세계 유행이 확산할수록 해외유입 위험도 높아질 것이라 판단한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최근 검역단계에서 들어온 코로나19 확진환자 11명은 모두 내국인이었다"며 "이들은 대개 이탈리아,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 영국 등 유럽의 다양한 나라를 경유해 들어왔고, 유럽 이외에는 태국, 이집트, 미국에 다녀온 3명 정도가 보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본부장은 "19일부터 특별입국절차를 전 세계로 확대하게 되면 미국이나 동남아까지 포괄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19일부터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오는 모든 입국자는 입국장에서 발열검사를 받고, 특별입국신고서를 제출하는 '특별입국절차'를 거치도록 조치했다. 한편 이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17일 0시보다 93명 증가한 8413명(광주 18명, 전남 5명)으로 집계됐다. 국내에서 확인된 사망자는 84명이다. 완치해 격리에서 해제된 확진자는 139명이 늘어 총 1540명이 됐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마스크 산책' 안전한 봄 날씨를 보인 18일, 광주시 북구 매곡동의 한 산책로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쓴 채 산책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코스피 1600선 붕괴

81.24 p 내린 1591.2

9년 10개월 만에 최저

정부의 각종 경기부양 정책에도 18일 코스피가 5% 급락해 1600선이 무너졌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81.24포인트(4.86%) 내린 1591.20으로 마감했다. 1600선을 밑돈 것은 9년 10개월(2010년 5월)만에 처음이다.

외국인은 10거래일 연속 '팔자'에 나서면서 5850억원어치를 팔아치웠다. 기관 역시 4315억원 순매도를 기록했다. 반면 개인은 9108억원을 순매수했다.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9.59포인트(5.75%) 내린 485.14로 장을 마쳤다. 코스닥시장에서도 외국인은 1231억원, 기관은 71억원을 각각 순매도했다. 개인은 1200억원가량을 순매수했다.

코스피 시가총액은 전날 1126조2020억원에서 1071조7870억원으로 54조4150억원 감소하고, 코스닥도 188조4600억원에서 177조7380억원으로 10조7220억원 줄어든다. 국내 증시에서 이날 하루 65조원이 증발했다.

연이은 증시 폭락에 이날 원·달러 환율은 또 올랐다.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2.2원 오른 달러당 1245.7원에 거래를 마쳤다. 2010년 6월11일(1246.1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6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 ~ 2020]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이홍재의 세상만사 '맛들 잡으러다...' ▶2면

4·15 총선-목포·고흥보성장흥강진 ▶5면

코로나19에도 KIA의 시계는 돈다 ▶20면



힘을 내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예방수칙

- 호흡기 증상자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
- 기침할때 옷 소매로 가리기
-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 씻기
- 발열, 호흡기 증상 있을 경우 가까운 보건소와 상담

코로나19 증상 의심시에는
먼저 **관할 보건소** 또는 **1339콜센터** 등의 상담 후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세요.

우리 힘으로 위기를 기회로,
절망을 희망으로 만들어낸 저력이 있습니다.
대구·경북은 결코 쓰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힘을 내시다.
조금만 더 참고 이 어려움을 **함께** 이겨냅시다.

새바람 행복 경북!

경상북도